

동아오츠카, 디앤카페 '카라멜라떼' 출시

동아오츠카가 디앤카페 '카라멜라떼'를 내놓았다. 달콤한 카라멜과 부드러운 우유 성분을 함유해 맛의 질을 높였다. 또 콜롬비아 아라비카 커피를 딥 로스팅해 풍부한 맛이 특징이다. 기존 디앤카페 오리지널과 아메리카노는 175ml인데 반해 카멜라떼는 240ml로 발매해 라인업을 다양화했다.

SK하이닉스-여주시, 용인반도체단지 상생 결단



21일 국회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구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이충우 여주시장, 이한준 LH사장,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 한무경·김선교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 뉴시스

여주시장 "용수제공"…"규제완화·협력업체 유치" 화답

2019년 투자 발표 이후 인허가 협의 안돼
산업부·여당·여주시장 등 분쟁해결 나서
17일 인허가 처리…내년부터 착공 예정
"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지원 1호 작품"



이충우 여주시장

120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의 초침이 다시 돌기 시작한다.

반도체 단지의 조성 주체인 SK하이닉스와 공업용수 공급의 키를 쥔 여주시가 합의한 결과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이 열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서산·태안), 김선교(여주·양평)·한무경·노용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충우 여주시장, 곽노정 SK 하이닉스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성구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약 415만㎡(약 125만 평) 규모의 부지에 5개의 반도체 공장(팹)을 조성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1만7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88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기대됐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약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여주 남한강에서 1차분으로 하루 26만5000톤의 물을 끌어갈 계획을 세웠으나 2019년 투자 발표 이후 아직까지 용지 조성 공사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2021년 5월 공업용수 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를 용인시에 요청했지만 여주시와의 인허가 협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주시를 지나는 남한강에 대한 취수 권한은 환경부에 있지만, 취수장과 용수관로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은 여주시가 갖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업용수를 위한 용수관로는 왕대리, 구양리, 번도리 등 여주시의 7.2km 구간을 지나가야 한다.

그간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인근 산업단지들의 용수 시설 설치로 주민들의 불편이 컸으며,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 제한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와 SK하이닉스에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8월에는 여주지역 시민단체 등 200여 개 단체들로 구성된 '여주 남한강 물이용 상생위원회'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안'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여주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7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한 이충우 여주시장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여주시와 SK그룹 간의 상생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국가와 경기도의 경제발전을 위해선 분명히 같이 뜻을 모아 협력해야 하지만 '상생'이란 단어에 맞게 한쪽의 희생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생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이 반도체 지원을 국정 전면에 내세우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여주시, 관계부처 간의 입장을 조율했고, 여당은 성 의장이 주도하는 당정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 시장도 여주시, 경기도, SK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종합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련 산업의 유치를 요청하는 등 분쟁해결과 상생을 위해 발 벗고 뛰었다.

그 결과 17일 여주시가 용수시설 구축을 인허가하면서 1년 6개월 간 지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공사가 본격화하면 내년 산업단지 착공을 거쳐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공장이 2025년 착공, 2027년 완공해 제품 양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주시를 위한 상생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여주시와의 상생을 위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 개선, 수질보전 사업 지원 등에 대한 가능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여기에는 ▲협력업체 20곳 이상 유치 ▲공장부지 면적 제한 2000m²로 상향 ▲지역 오염총량제 탄력적 운용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250억 원 상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여주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전개, 여주산 쌀 소비 진작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성일종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1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여주시에도 대박이라고 할 만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우 시장은 "그동안 여주시가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해 왔듯 미래 경쟁력 핵심사업인 반도체 산업단지 추진에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여주시 발전과 규제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AK홀딩스, 백차현 신임 대표이사 선임
"책임경영체제 안착…새로운 혁신 도전"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21일 백차현(사진) 전 애경자산관리 투자부문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백 신임 대표는 1992년 애경산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2020년 AK아이에스 투자부문 대표이사까지 28년간 애경그룹에서 근무한 '애경통'이다. 특히 재무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관리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인사를 통해 AK홀딩스는 애경그룹의 책임경영체제 및 재무건전성을 더욱 견고히 해 투자형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탐색하고 발굴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 계획이다.

회사 측은 "애경그룹은 그동안 전문경영인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하에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혁신과 변화를 추진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증가한 내부의 다양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경영 체제를 안착시켜 새로운 혁신과 변화에 도전하며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겨울 빙판길 '꽈당'…급성 허리디스크 위험↑
상태 심각할 시 양방향 척추내시경수술 고려

겨울 낙상사고는 자칫하면 골절이나 뇌진탕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허리디스크도 포함된다. 겨울은 운동량이 줄면서 근력이 약화되고 낮은 기온으로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어 척추의 안정성도 떨어진 상태이다. 평소보다 작은 충격에도 크게 다칠 수 있다.

낙상 후 허리를 숙이거나 앉을 때마다 통증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도 저리고 아프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초기 허리디스크는 충분한 휴식과 약물치료, 운동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일정 기간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효과가 미미하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양방향 척추내시경수술은 0.7cm 정도 크기의 작은 2개의 구멍을 뚫어 한쪽에는 초고화질 내시경을 삽입하고, 다른 한쪽에는 치료 도구를 넣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이다.

전신마취를 하지 않아 고령,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까지 수술이 힘들던 환자들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수술 당일 혼자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빨라 직장인, 학생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4세대 양방향 척추내시경수술은 내시경으로 더욱 정밀해진 초고화질 내시경을 통해 직접 병변을 보면서 제거하기 때문에 신경, 근육, 혈관 등 정상 조직 손상 위험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연세고든병원 **김태겸** 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충전 스트레스 해결! 전기차끼리 충전한다"

기아-티비유, '차량간 급속충전 실증' 업무협약
급속충전기 보급 18% 불과…충전 어려움 여전
전력 거래로 수익 창출…대중화 기폭제 될 듯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얼마나 될까. 20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차는 작년 10월(109만5000대)보다 38.3% 증가한 151만5000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이브리드차(112만1000대)이며,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는 36만5000대에 불과하다.

작년과 비교하면 72.7%나 늘어난 수치지만 2025년까지 친환경차 283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걸림돌이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충전 인프라를 얼마나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전기차 충전기 보급대수는 7만2105기다. 얼핏 보면 넉넉해 보이지만, 전기차 오너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급속 충전기는 18% 수준인 1만2789기에 불과해 전기차 오너들은 여전히 충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아가 전기차 충전 스타트업 티비유와 함께 차량간(V2V) 급속 충전 신기술 기반 에너지 거래 솔루션 실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차량간 급속 충전은 현재 꾸준한 판매 증가를 보이고 있는 전기차의 차량간 급속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차량 내부 시스템 활용을 통해 전기차 충전구끼리 케이블로 연결해 차량간 충·방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티비유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 '일렉배리'를 서비스하는 스타트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아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충전 수요공급 매칭 최적화 알고리즘, 충전소 운영 효율 예측 서비스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특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다.



21일 윤승규 기아 국내eBiz솔루션 실장(오른쪽)과 백상진 티비유 대표가 차량간 급속충전 신기술 기반 에너지 거래 솔루션 실증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아

기아-티비유가 개발을 진행 중인 급속 충전 신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전기차 오너들의 충전은 더욱 쉬워진다. 이런 에너지 거래가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될 경우 기아 전기차 구입 고객은 차량 내부 시스템을 활용해 충·방전 전력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이 기아의 설명이다.

최종 소비자는 가정용 충전인프라 설치나 충전을 위한 이동 및 대기시간이 필요 없어져, 전기차 활용을 위한 가장 큰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기술이 전기차 보급 확대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기아와 티비유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차 소유 고객의 체감 충전시간 경감 ▲전력 재판매를 통한 수익 모델 확보 ▲에너지 시장 활성화에 대비한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